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3(2): 103~109, 2017. 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ISSN 2465-8146

한국사찰의 비보풍수에 관한 사례연구

권용무* · 홍광표** · 이혁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 ***태양환경연구소

Case Study of Regarding Bibo Pungsu of Korean Temples

Kwon, Yong Moo* · Hong, Kwang-Pyo** · Lee, Hyukja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Sun Environment & Development Co., Ltd.

ABSTRACT

Pungsu of Korea has been the secret of appointing capitals or towns, deciding the locations of houses, as well as finding the places of tombs for dead people. Bibo pungsu was introduced by Doseon during the end of Shilla and the early Goryeo; it is the unique way of Korean Pungsu and has been advanced based on its own tradition. Bibo Pungsu is the way of complementing the lay of the land and water for blocking wind and getting water which are the important issues of Pungsu. There are various instances of Bibo Pungsu; expecially, temples are the places where the Bibo Pungsu of Doseon was appli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application method which can be different from those for other spaces are found. In this study, the investigate for 30 temples were done for finding the measures and the applications methods of the Bibo Pungsu of Korean temples. Also,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all documents and materials for prospecting was conducted. Through the study, it could be known that the factors of Bibo Pungsu have been applied quite generally and comprehensively. Also, they are shown in terms of various factors. The common factor of those application methods is that they never harm the lay of the land or change the flow of mountain streams or basins. This shows that the Bibo Pungsu of Korean temples has complemented the insufficient parts within the order of natural environment.

Key Words: Bibo Pungsu, Temples, Nugak, Forest, Pagoda, Pond, Man Made Mountain

국문초록

한국의 풍수는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집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수도나 마을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비보 풍수는 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 도선이 도입한 독특한 한국의 풍수라는 방법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에 따라 발전되었다. 비보풍수란 풍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풍과 득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물과 지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비보풍수가 적용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비보풍수가 한국의 자생풍수로 크게 기여하였다는

Corresponding author: Hong, Kwang-Py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Phone: +82-10-5334-7436, E-mail: hkp@dongguk.ac.kr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찰의 경우에는 도선의 비보풍수가 가장 먼저 적용된 공간이며, 여타 공간과는 다른 독특한 적용방식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풍수법과는 또 다른 수단과 적용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찰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찰 비보풍수를 실증적인 적용수단과 적용방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비보풍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적용 방법에서는 결코 땅의 지형을 해치거나, 산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찰의 비보풍수가 자연 환경을 부분적으로 보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비보풍수, 사찰, 누각, 숲, 탑, 계담, 조산

Ⅰ. 서론

한국에서 풍수는 오래전부터 도읍과 마을을 정하고, 집의 자리를 잡고, 죽은 이들이 묻힐 곳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비결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나말여초에 도선(827~898)이 설한 비보풍수는 자연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학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이는 중국의 풍수와는 또 다른 한국의 특유의 풍수 선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선의 비보풍수는 이후 한국풍수의 근간을 이루며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비보설은 道詵을 宗祖로 삼으며, 비보설의 역사적 기원은 裨補寺塔說에 있다. 비보사탑설이란 산천의 順逆을 살펴 地德의 衰處나 逆處에 사찰·탑·불상을 세워 자연조건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비보는 역사적 정황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변모해 왔고 다양화되었으며, 그 유형에는 사탑·숲·조산·장승·못 등의 可視的인 형태와 지명·儀禮·놀이 등의 非可視的인 형태가 있다. 한국에는 이러한 비보적 문화경관이 취락에 보편적으로 분포하는데 다양한 형태 및 기능을 지닌 비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최원석, 2001). 비보풍수란 풍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풍과 득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형과 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비보풍수가 적용된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보풍수가 한국의 자생풍수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찰의 경우에는 도선의 비보풍수가 가장 먼저 적용된 공간이며, 사찰의 비보풍수는 여타 공간과는 다른 독특한 적용방식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풍수법과는 또 다른 수단과 적용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풍수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하나의 미신이나 민간신앙 혹은 가풍이나 생활방식으로 여겨져 와다. 그것은 풍수법이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왔고, 또한 풍수사에 따라서도 적용된 결과가 달라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풍수법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함에 있어서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풍수를 연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학이나 환경학을 연구하는 이들까지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풍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비보풍수는 일반적인 풍수의 이론에 자연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작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비보풍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조경분야에서 자연화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에서 나타나는 비보풍수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의 적용방법은 어떠했는가를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한국사찰의 비보풍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적용수단과 적용방식을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찰에서 이루어진 비보풍수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후, 한국사찰에서 나타나는 비보풍수의 수단과 적용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국 30개 사찰을 직접 답사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답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대상사찰 각각 3회씩 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답사는 문헌에서 찾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비보의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1차 답사에서 얻은 자료는 연구실에서 다시 확인하여 조사할 내용을 보완하고, 2차 답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비보적 현상이 뚜렷한 10개소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조사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재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수단을 누각, 비보숲, 조산, 탑과 석등, 계

담과 못으로 정리하고, 그 각각의 수단이 연구대상 사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주목하였다. 누각의 경우에는 댕웅전 어칸중심에서 누각의 좌우 기둥으로 선을 놓고 다시 그 선을 전면으로 연장하여 그 연장선이 사찰 전면 좌우측의 산(좌청룡, 우백호)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확안하여 누각이 어떤 방식으로 비보적 수단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은 연장선이 전면의 산과 만나는 점의 표고와 두 점간의 거리이다. 비보숲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인공적으로 심은 숲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항목은 위치, 규모, 수종이다. 조산의 경우에는 지형도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형을 찾고, 그러한 지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비보수단으로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탑과 석등의 경우에는 사찰의 규범적 위치의 탑이 아닌 예외적 현상의 탑을 찾아 그 탑이 어떠한 방식으로 비보적 수단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밝혔다. 계담과 못의 분석항목은 그러한 수경관이 어디에 조성되었는지,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이고, 그것이 무엇과 상관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선행연구

불교미술사 분야에서 진홍섭(1978; 1980)은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형석탑의 형식 및 건립의 위치의 특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각 석탑의 기단형식과 건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경상도 지방의 공통된 기단형식을 도출해 냈는데, 그의 연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석탑이나 석불의 건립 시 저면이 전개된 지점을 택한 이유이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오악존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선종의 영향에 의한 산천비보사상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비보 탑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비보풍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비보탑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표 1. 분석의 틀

비보수단	비보방식	분석항목
누각	용맥비보, 장풍비보, 엽승비보	누각과 사찰전면 지형간의 상관성
비보숲	용맥비보, 형국비보, 장풍비보, 엽승비보	비보숲의 위치, 규모, 형상
조산	용맥비보, 형국비보, 장풍비보, 엽승비보	조산의 위치, 형상
탑과 석등	형국비보, 엽승비보	탑과 석등의 위치
계담과 못	득수비보	계담과 못의 위치

김진숙(2015)은 고려시대 비보사탑과 불상조성에 관한 연구에서 땅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을 불교 건축물로 보완하는 것이 비보사탑이라고 하며, 불상 또한 이러한 비보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불상 형태가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조경학분야에서는 장동수 외(1993)의 경상도 지방 임수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주목된다. 그들은 임수라는 것이 자연적인 산림 이외의 인공림을 지칭하며, 저습지나 풍수적인 비보사상에 의해 조림된 삼림으로 보았다. 그들은 조사결과 시단위에서 임수의 존재가 많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이용, 경관, 보안 등의 기능적 가치뿐 아니라, 풍수, 유고, 토착신앙 등 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하여 임수의 비보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김학범(1991)의 한국의 마을조림에 관한 연구에서는 마을숲의 비보 형태와 기능을 고찰하였으며, 장동수 외(1993)는 경상도 지방 임수에 관한 연구에서 비보 숲을 다루었다. 기록이 나타난 문헌을 중심으로 임수의 특징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수의 주요 특징을 크게 풍수적 배경, 보완적 목적 등으로 나누고, 이중 풍수적 배경에서 조성된 임수는 읍기의 진산, 수구의 주변부나 북편의 허를 보완하고 유교적 배경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희동(1990)은 경관요소로서 축산의 조성에 관하여 살피었고, 이재준(1990)은 조경설계로서의 가산의 조형기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김영진(1989)은 전통마을 공간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중에서 비보적 요소를 언급하였다. 민속학 분야에서 이필영(1989)과 김의숙(1992)은 각각 충남 금산과 장원도를 사례로 비보적 기능을 하는 돌탑에 관해 민속신앙적인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배상현(1999)은 고려시대의 사원촌락의 연구에서 통도사 비보장생에 관해 언급하였다. 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최창조(1983)가 단연 독보적인데, 그는 어떤 경우이든 양기가 한번 결정되어 정지가 되어버리면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기의 쇠운을 방치할 수단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보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 그의 이론적 특징이다. 최원석(1992)은 풍수의 입자에서 본 한민족의 산의 관념에 관한 연구에서 조산을 한국적 산 관념의 핵심요소로 주목하였고, 또한 그의 다른 연구(2000)에서 영남지방의 비보에 관하여, 지역적 양상과 특성의 탐구를 통해 보았을 때 비부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적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형태이자 기능적 요소라 하였다. 특히 비보경관의 발달을 영남지방의 사례를 통해 고찰

하며, 비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밝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비보풍수의 이론

비보풍수론은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존의 풍수적 전통에 대한 비보의 인문적 가치를 상보적으로 결합시킨 풍수의 발전적 재해석이자 재구성이다. 따라서 비보풍수론은 풍수원리가 지닌 자연이 사람에게 미치는 결정적 편향에 대한 인문적 보정이자 재편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 비보적 접근은 시대별, 지역별 주민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주거환경 형태의 의미 모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며, 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과 대응 양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비보는 전통취락의 환경원리이며, 경관요소로서, 취락의 입지와 환경구성 및 배치 및 조경을 구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지리학적 접근틀이기도 하다.

비보풍수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용맥비보, 장풍비보, 득수비보, 형국비보이다.

용맥비보란 명당을 이루는 용맥(주맥)의 형세와 기운을 조절하여 적정 상태로 맞추는 것으로써, 동산, 단산, 석산, 핍산, 과산, 독산, 측산일 경우, 산기가 쇄하였을 경우가 비보의 대상이 되는바, 이럴 때 보토를 하거나 조산을 하거나 숲을 조성하여 생기를 북돋우면서 이상적인 상태로 갖춘다고 되어 있다. 특히 산기가 쇄하였거나 동산일 경우는 소나무를 식목하여 생기를 배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비보숲이다.

장풍비보는 풍수상 장풍적(藏風的)조건을 보완하여 주는 것이다. 청오경에서 말한바, 이상적 지형은 '사합주고(四合周顧)'라 하여 주위에 사방의 산수가 두루 감싼 듯 보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주문에 '사합주고란 좌우전후에 비거나 빠진 것이 없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명기(明基)의 조건을 표현한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지형에서는 장풍비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득수비보라 함은 화(火)기를 방어하고, 수(水)기를 보완하여 물을 얻어 자연의 기운을 득(得)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찰의 비보풍수에서는 못을 통해서 특수를 하게 되는데, 못이 없는 경우에는 샘을 통해서 득수를 한다(부석사 지장전).

형국비보라 함은 특별한 형국을 가진 풍수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비보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북형국의 지형을 가진 곳에서 거북머리 부분에 물이 없을 경우, 못을 만들어 그 형국에서 요구하는 바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국비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엽승비보는 길하지 않은 환경적 상태를 길한 상태로 극복하기 위한 비보의 수단이다.

3. 현장조사 결과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사찰에서 나타나는 비보풍수의 수단은 건물, 숲, 석등과 석탑, 계담, 조산, 못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러한 비보의 수단이 한 사찰에 모두 적용된 사례는 없었으며, 사찰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면 각 사찰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따라 지형과 물에서 나타나는 허한 부분을 독특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 누각

불교 전래 초기의 사찰은 중문-탑-주불전-강당이 일직선 축선상에 배치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형식은 선불교가 수입되어 사찰의 입지가 산간 경사지로 이동하면서부터는 삼문-누각-탑-주불전으로 배치형식이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지사찰의 형식을 가지면서 누각이 강당의 기능을 대체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누각이 단순히 강당의 기능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비보풍수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이론이어서 향후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각은 사역 전면부의 좌청룡, 우백호가 분명하게 관쇄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 용맥비보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주불전 전면부에서 누각의 바깥기둥을 연결한 선을 연장하면 좌청룡과 우백호가 만나는 접점의 표고가 누각의 바닥면의 표고와 비교할 때 거의 같거나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누각은 모두 용맥비보를 위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신륵사의 경우와 같이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엽승비보의 수단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숲

일반적으로 풍수에서는 숲에 대해서 수구막이를 위한 기능과 바람길을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허한 용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숲의 기능은 사찰에서도 거의 틀림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비보 숲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확연하게 남아있는 곳은 법주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이다. 비보의 형식은 대부분 수구막이용 엽승비보였으며, 용맥비보, 장풍비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계류나 물길과 연관이 있는 수구막이 숲은 물의 유속이 빨라 기운이 약하거나 계류가 흘러 나가는 곳에 주로 위치하여 그 기운을 비보하고, 물의 수구가 시야에 바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사찰

그림 1. 신륵사(누각비보)

그림 2. 구룡루 쪽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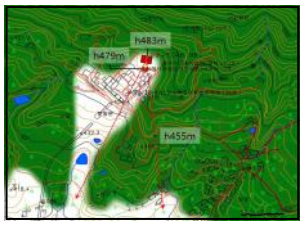

그림 3. 부석사(누각비보)

그림 4. 안양루 쪽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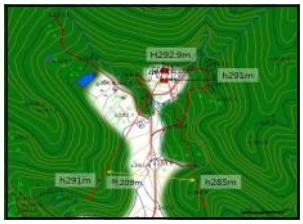

그림 5. 봉정사 누각비보

그림 6. 만세루 쪽 경관

에 조성된 모든 숲이 주불전과 누각을 연결하는 중심축선 상의 연장선 말단부에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일주문 전면부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탑

탑을 사용한 비보는 신륵사와 법주사의 망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보 탑으로는 신륵사의 전탑과 석탑의 경우를 보면 여강의 수마의 힘을 비보하기 위함으로 그 자리를 보전하며, 법주사 비보 탑의 경우는 주불전 앞쪽으로 트여진 지형을 탑으로 조성하여 비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보탑은 도선이 말한 비보풍수의 요체가 되는 것으로 시가적 비보보다는 의미적인 요소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망탑의 경우, 일반적인 탑의 형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한 특별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4) 조산

조산은 지형이 허함을 채워주는 실질적인 비보형식으로 신륵사와 선암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산은 가장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비보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은 산지에 조성된 곳이 많아 이런 조산의 비보형식은 많이 나타나지 않으나, 민가, 궁 등 평지의 비보로는 다수 존재한다. 단지 시각적으로 가

그림 7. 법주사 비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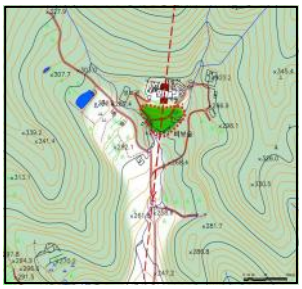

그림 8. 봉정사 비보숲

그림 9. 쌍계사 비보숲

그림 10. 범어사 비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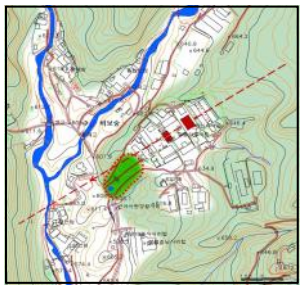

그림 11. 해인사 비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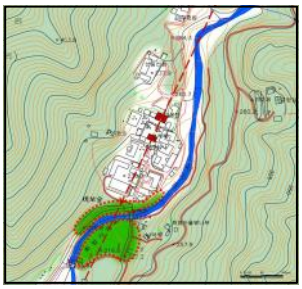

그림 12. 화엄사 비보숲

리고 보호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실제로 지세를 돋우어 비보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나 기술 및 지형상의 문제로 많이 도입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추측된다.

5) 계담과 못

계담과 못의 경우에는 산지 사찰에서 사찰 주변을 흐르는 계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써, 조사된 대상지 사찰 중 8개 사찰(신륵사(강), 법주사, 부석사(샘), 쌍계사, 화엄사, 대흥사(계담, 못), 해인사(못), 선암사(못))에서 볼 수 있는 비보의 방법이었다. 비보 연못의 일반적인 기능은 지기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장풍적 조건 보완이 있다. 또한 득수 비보의 기능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유속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비보뿐만 아니라, 방화수를 담거나 생활에 필요한 생활수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수단에 비해서는 매우 요긴하게 쓰인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찰 주변 환경요소로서 아

그림 13. 신륵사 비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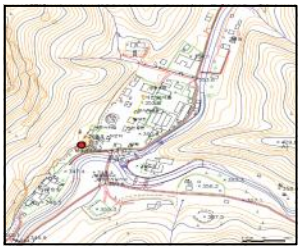

그림 14. 법주사 망탑

그림 15. 신륵사 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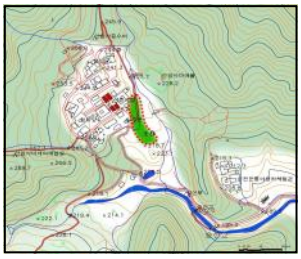

그림 16. 선암사 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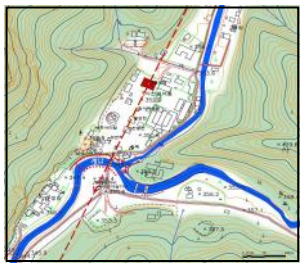

그림 17. 법주사 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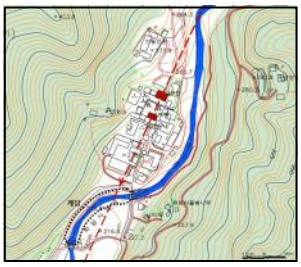

그림 18. 화엄사 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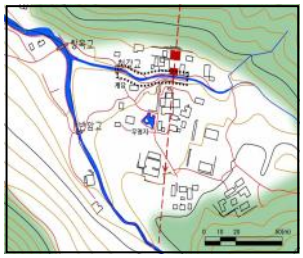

그림 19. 대흥사 계담,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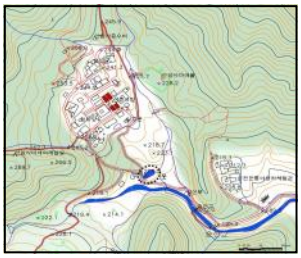

그림 20. 선암사 못

주 중요함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계담의 위치가 대부분 주불전 전면에 위치하여 누각, 비보숲과 함께 비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사찰을 대상으로 비보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의 적용수단과 적용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찰에서 비보풍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알려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 실제 조사분석한 결과, 누각, 비보숲, 조산, 계담과 못, 탑이 비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보수단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사찰의 비보풍수 수단

구분	사찰명	누각	숲	탑	계	조산	못
1	용주사	천보루	○	○			
2	법주사		○	○	○		
3	신흥사	보제루	○				
4	신륵사	구룡루		○		○	
5	동화사	봉서루		○	○		
6	은해사	보화루	○		○		
7	통도사	설법전	○		○		
8	불국사	자하문		○		○	○
9	마곡사				○	○	
10	부석사	안양루				○	
11	봉정사	양화루					
12	고운사	기문루	○	○			
13	직지사	남원료	○				
14	실상사		○	○			
15	벽송사			○		○	
16	도갑사	해탈문		○	○		○
17	쌍계사	팔영루	○	○			
18	월정사	금강루		○	○		
19	화엄사	보제루	○				
20	해인사	구광루					○
21	송광사	성보각	○		○		
22	범어사	보제루		○		○	
23	백양사	만세루	○	○	○		
24	대흥사	침계루			○		
25	선암사	만세루					○
26	선운사	만세루	○				
27	금산사	보제루	○				
28	자장암			○		○	
29	장곡사	운조루	○	○			
30	금산사						○

첫째, 누각의 경우 시각적 비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로 비보수단으로서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각은 각 사찰의 주불전 마당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안산이 부재하거나 또는 관쇄되지 않은 남 주작의 기운을 비보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적용방식을 보면, 주불전의 중심에서 누각의 외곽기둥으로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 연장선과 만나는 좌청룡, 우백호의 표고는 누각의 그것보다 최대한 같거나 낮았으며, 그 연장선의 폭은 대부분 관쇄되지 않은 부분과 동일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았었다. 이러한 누각으로 인하여 주불전의 영역이 시각적으로 보호되어 용맥비보, 장풍비보, 엽승비보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비보숲은 각 사찰에서 주로 물길이 있는 곳, 계류가 흘러 내려가는 부분의 지세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되는데, 물이 모이거나 갈라지는 부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비보숲이 조성된 자리가 주불전의 축성 상에 이어 비보숲이 그냥 조성된 것이 아니라, 주불전과의 시각적, 구조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보숲은 수구를 시각적으로 막아주거나 지형이 낮아 기운이 허한 것을 돋궈지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보숲은 장풍비보, 형국비보, 협승비보라는 비보방식을 통해서 사찰의 허한 기운이나, 길하지 않은 상태를 비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산의 경우는 주불전의 터를 감싸는 좌청룡과 우백호가 낮고 짧아 전면부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지형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것이다. 한국사찰에서는 조산을 통한 비보의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사찰의 입자가 주로 산지에 위치하여 조산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조산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담이나 못은 사찰에서 가장 요긴한 요소로 생활에 필수인 물을 공급하거나 미기후를 조절하거나, 목재건물이 방화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수로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 이외에도 사역을 휘감고 돌아가는 물길이 빠지는 부분에 보를 막아 물의 속도를 늦추고 물을 모았다가 천천히 흘러가게 하여 기운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탑은 도선국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의미적으로 비보풍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찰에 존재하는 많은 탑들이 모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찰의 탑들은 대분 마당 한가운데 두어 배치상으로 중정탑의 규범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정탑이 아닌 경우는 때에 따라서 비보탑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망탑의 경우는 비보적 수단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조산이나 비보숲 혹은 누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이 한국사찰에서의 비보풍수는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보의 수단은 누각, 숲, 탑, 조산, 계담, 못 등 매우 다양하여 비보풍수가 단순히 비보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찰의 법식을 완성하고,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용방식은 사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지형을 훼손하거나 계류의 흐름이나 유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한국사찰의 비보풍수는 자연환경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가진 부족한 내용을 채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찰을 대상으로 비보풍수의 수단과 비보방식을 규명한 것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여 한국의 풍수지리에서 비보풍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References

1. 김려중 비보풍수의 유형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2. 김영진(1989) 한국전통마을의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두산 김택규 박사회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3. 김진숙(2015) 고려시대 비보사탑과 불상조성. 불교연구 42: 253-283.
4. 김학범(1991) 한국 마을조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마곡사지(2012) (재)한얼 문화유산 연구원.
6. 박진호(2003) 황극원도.
7. 배상현(1999) 고려시대 사원촌락 연구. 국사관논총 87: 95-139.
8. 서윤길 도선비보사상의 연원. 동국대학교 불교학보 제13호.
9. 이재준(1990) 조경설계에서의 가산 조형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필영, 김의숙(1992) 충남 금산의 탑 신앙연구. 백제연구19. 충남대 백제연구소 보고서.
11. 장동수, 이규목, 김학범(1993) 경상도 지방에 조성된 입수의 경향과 특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2): 77-89.
12. 진홍섭(1978) 이형석탑의 일기단형식의 고찰. 미술사학연구 138,139: 96-109.
13. 진홍섭(1980) 이형석탑의 일기단형식의 고찰 보. 미술사학연구 146,147: 25-30.
14. 최병헌(1975) 도선의 생애와 나말려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5. 최원석(2001) 비보의 개념과 원리. 민족문화연구 34: 133-175.
16. 최원석(2000) 우리땅 풍수기행.
17. 최원석(1992) 풍수의 입자에서 본 한민족의 산 관념, 천산, 용산 그리고 인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최원석(2000) 영남지반의 비보사탑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최창조(1983)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20. 한희동(1990) 경관요소로서의 축산의 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조선총독부.

Received : 21 December, 2017
Revised : 22 December, 2017
Accepted : 31 December, 2017
3인익명 심사필